

어등산관광단지개발 또다시 무산

우선협상자 서진건설 협상 시한까지 무응답 광주시, 담보 48억 상당 유가증권 몰수 전망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 사업자 사업제안 3차 공모에서도 최종 무산됐다.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자인 (주)서진건설이 본계약적인 사업 협약을 협상 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하면서다.

광주도시공사는 협상 시한인 지난 20일 까지 서진건설 측이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시는 조만간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따라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자 선정 전 서진건설 측이 사업 이행 보증금 성격으로 광주시에 맡긴 48억원 상당의 유가증권(당차 수표)도 광주시가 몰수할 전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 시한인 20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초 20일 도시공사 사옥에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서진건설 측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초 양측은 지난 16일 사업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서진건설 측이 광주시에 예치한 48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협약 체결 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협상 시한이 이날까지 연장됐다. 서진건설은 유가증권을 돌려주던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요구했고, 도시공사는 사업이행 담보를 위해 유가증권을 받은 만큼 협약 체결과 이행보

증금에 대한 은행권의 지급보증이 마무리 돼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진건설이 도시공사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협약이 체결되는 듯했으나, 결국 서진건설은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서진건설이 광주시에 예치해 놓은 유가증권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자본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자 서진건설 측이 사업 이행 방안을 제출하면서 48억원 상당의 유가증권도 광주시에 맡긴 것이다. 앞선 2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인 (주)호반 측이 협약 체결을 앞두고 막판에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무산된 전례를 교훈 삼아 협상 기간 성실 협상을 담보하는 보증금 성격도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공모 지침에

따라 광주시가 금명간 서진건설 측에 부여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전 서진건설 측이 광주시에 맡긴 48억원 상당의 유가증권도 광주시가 몰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모 지침에 따르면 협상 결렬 또는 협상 시한까지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협약과 그 이듬해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2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주)호반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호반 측이 막판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다변화 경쟁력 강화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24곳 납품 11분기·육선 등 온라인 마케팅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게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유통 채널을 다변화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기업 운영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올 한 해 다각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지난 4월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유통센터, 순천원에 농협과 나주금천농협 등에 제품 상시 입점 및 홍보를 위한 특판행사를 가졌다. 그 결과 광주·전남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24개 지점에 총 39개 업체, 538개 사회적경

제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 전문무역상사 등을 초청해 '사회적경제 품평·상담회'를 열어 28개사 98개 제품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7개 제품을 코레일유통에 상시 입점하는 성과를 냈다.

수도권 등으로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롯데백화점 대전점, 12월 서울노원점에서 판촉전을 벌였다. 신개념 비록 시장인 플라마켓 참가기업에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판촉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매일 우수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소풍몰인 '녹색나눔'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150개 기업 400여개 제품을 11분기, 쿠팡, G마켓, 육선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홍보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한바퀴-KTX 연계 바다여행상품 출시

전남도 내년부터

전남도가 2020년부터 버스 여행상품인 남도한바퀴와 KTX를 연계한 새 여행상품 '남도한바퀴 새바여행'을 출시한다.

'새바여행'은 새벽기차 바다여행이란 의미다. 이른 아침 KTX를 타고 광주출정역에 내려 남도한바퀴 버스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저렴한 이용요금과 편리한 KTX 역 출발로 하루 만에 전남 바다여행을 가능하게 한 여행상품이다.

남도한바퀴 새바여행은 총 4개 코스로 구성됐다. 명품 해안부의 대결이 펼쳐지는 '술비치해안길 VS 접도웰빙길 여행(해남·진도)', 천사대교 넘어 새로운 판타

지 '천사의 섬 여행(신안)', 최고바다 최대 난대숲의 만남 '남녀노소 엄지척 여행(해남·완도)', 고흥 속의 신의 선물 '자연 속의 예술여행'이다. 매주 수·목·금·일 1일 2코스씩 주 8회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코스에 따라 1만9000~3만 6100원이다. KTX 편도운임과 남도한바퀴 이용요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KTX 출발역별로 요금에 차등이 있다. 출발역은 행신역,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오송역, 광주역, 익산역, 정읍역 등 총 8개 역이다. 용산역 기준 오전 6시 30분 출발하는 KTX505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섬 관광 활성화 '가고 싶은 섬 민·관 워크숍'

완도 소안도서 열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완도 소안도에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사업 공유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가고 싶은 섬 민·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여수·남도 등 16개 '가고 싶은 섬'의 추진위원장, 마을기업 대표 등 섬 리더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해 민·관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섬 코디네이터 성과와 발표와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항일운동 성지이자 2015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소안도는 주민

소득 창출 일환으로 소안도 폐교를 리모델링해 마을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에선 또 섬 여행상품을 기획·안 내·홍보하고 섬의 특색과 숨겨진 비경, 섬 음식, 섬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섬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참여 섬 주민들이 소안도, 손죽도 등 4개 섬의 섬관광 해설을 선보였다.

직무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에선 백승휴 포토테라피스트가 '사진놀이를 통한 긍정적 시선'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서 외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섬, 다양한 사진 기법을 통한 섬 기르기 사업 추진 방법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지팥죽 함께 나눠요. 절기상 동지(冬至)인 22일 오후 광주 동구 푸른길 문화미당에서 열린 '2019 동지팥죽 나눔행사'에서 동구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동지팥죽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2020년 친환경농업 육성 1518억 지원

유기농 중심 품목다양화 구축

전남도가 2020년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 사업에 집중해 15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177억원(13.2%)이 늘어난 규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 중심의 품목다양화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

득 안정,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 농업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책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7개 사업 828억원, 유기농업 생산 기반 구축 8개 사업 538억원, 농업환경 보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12개 사업 152억원 등이 있다.

특히 소비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친환경 과수·채소 품목의 인증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과수·채소 지원 단가를 ha당 20만원씩 인상해 지원한다. 유기농 과수는 180만원, 채소는 160만원, 무농약 과수는 120만원, 채소는 100만원이다.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으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 20억원을 지원

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환경보전 사업 4개소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또 친환경 실천 농가의 재배·생산 기술 향상과 인식 제고를 위해 보성, 담양, 영암의 친환경농업 교육관 3개소를 통해 유기농 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만5770ha로, 유기농업 집중 육성으로 크게 향상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슬라에너지